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WEF Issue & Insight

2025 년 4 월 25 일, WEF 4 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 보기

2025 지구의 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와 과제
(Earth Day What is it, when is it and why is it important)

-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동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 **2025년 지구의 날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Our Power, Our Planet)'를 주제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청정 전력 생산을 세 배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직면할 주요 리스크 10개 중 절반이 환경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4월 16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로 전 세계 약 10억 명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날 공식 캠페인과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림 파괴나 생물다양성 손실 등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개인과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2025년 지구의 날의 테마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Our Power, Our Planet)'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구의 날의 의미와 올해 주제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조명합니다.

'행동하는 날'로 자리 잡은 지구의 날, 전 지구적 연대의 시작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대규모 석유 유출, 산업 폐기물로 인한 대기와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위스콘신주의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Gaylord Nelson)'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티치인(teach-in)' 교육 운동을 제안했고, 이는 전국적인 거리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약 2천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참여해 뉴욕의 5번가가 마비됐으며, 보스턴의 공항에서는 학생들이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 같은 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설립되었으며, '국가 환경 교육법(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등 대표적인 환경 법안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질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 사용 규제 등 보다 광범위한 환경 보호 장치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141개 국가에서 2억 명의 시민들이 재활용과 기후 대응 행동에 동참하면서 지구의 날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대됐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른바 '지구 정상회의

(Earth Summit)'가 개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세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출범시키며 환경 협약의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 기후붕괴를 막을 마지막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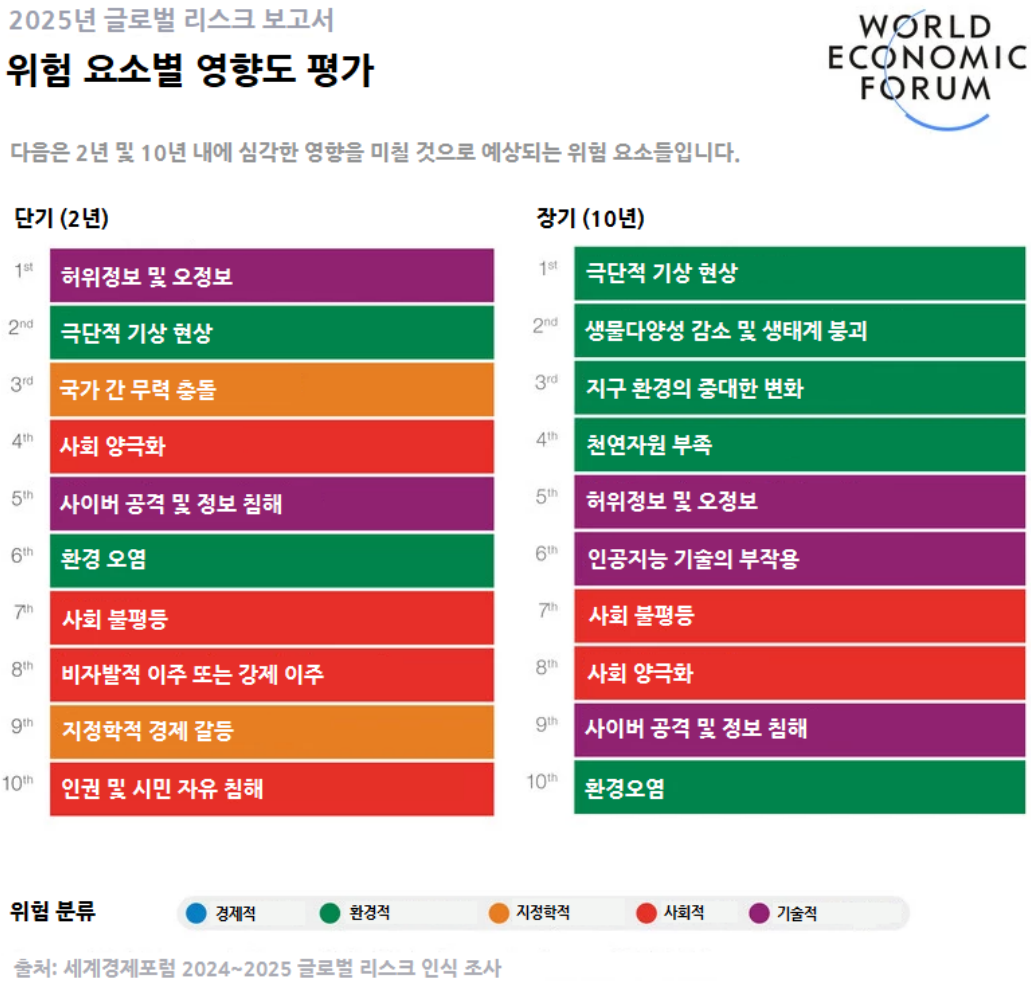
2025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Our Power, Our Planet)'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2030년까지 청정 전력 생산을 세 배로 확대하자는 국제적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이 설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올해가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한 결정적 시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지난 10년(2015년~2024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 이상 높아진 첫 번째 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850~1900년 평균 기온보다 약 1.55℃ 높은 수치입니다.

생존을 위한 연대, 지구의 날 55년의 메시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 2025)'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직면할 최대 리스크의 절반 이상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붕괴, ▲지구 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세 가지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며,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안보, 건강 등 전 분야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연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54%를 흡수하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늦추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 해

양 이용, 인프라 개발, 광산 채굴 등 인간 활동은 현재 멸종 위기 또는 위협 수준에 놓인 생물종의 약 80%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동물, 해양생물, 식물, 곤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감소 속도가 지난 1,000만 년 동안 관찰된 그 어떤 시기보다도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55주년은 단지 과거의 성취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970년 첫 지구의 날 당시, 시위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전국적으로 하나 되어 행동한 날(A day set aside for a nationwide outpouring of mankind seeking its own survival)"이라 표현한 CBS의 앵커 '월더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의 말처럼 지구의 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와 결단을 요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라는 슬로건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주체가 결국 우리 자신임을 일깨워 줍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WEF 해당 사이트 및 관련 동영상 보기